

여수국가산단에 1조2천411억 투자...산업구조 전환 기대

道-여수그린에너지·한화글로벌·LX협약
금지사 “체질 개선...지역경제 회복 총력”

전남도는 26일 동부청사에서 여수그린에너지(주), ㈜한화 글로벌부문, ㈜LX MMA 등과 1조2천411억원, 고용 창출 147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한상훈 여수그린에너지(주) 대표이사, 김태욱 ㈜한화 글로벌부문 머티어리얼(Material) 사업부장, 김창호 ㈜엘엑스 엠엠에이(LX MMA) 공장장, 정기명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번 투자가 여수국가산단의 범용 석유화학 소재 중심 산업구조를 친환경·바이오·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라 건설·물류·서비스업 등으로 고용이 확대 돼 지역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투자협약에 따라 여수그린에너지는 1조원을 투자해 여수산단 입주 기업에 전력·스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 전남동부청사 나철실에서 여수그린에너지(주), ㈜한화 글로벌부문, BASF 한국바스프(주), ㈜LX MMA 등과 투자금액 1조2천441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스팀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석탄화력발전 대체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화 글로벌부문은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

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완충용액의 핵심 원료인 고순도 트리스(TRIS)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그동안 전량 해외에 의존하던 바이오 공정 핵

심 소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체 생산하게 되며 국가 바이오산업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기존 범용 화학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고

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LX MMA는 내후성, 내마모성, 접착성이 뛰어나 자동차 부품, 페인트 원료 등에 사용되는 특수 플라스틱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를 생산한다. 특히 새로 증설되는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3공장은 생산량의 약 70%를 수출해 전남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지사는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해온 핵심 생산기지”라며 “투자협약을 계기로 여수국가산단의 체질 개선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고부가가치·친환경 기업 중심의 투자유치와 함께 4조6천억원 규모의 ‘석유화학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앞으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화학산업 특화단지 조성 ▲친환경·고부가가치 공정 기술개발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 등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내란특검, 한덕수 前총리 징역 15년 구형

“2인자가 국민 봉사 의무 저버려 피해 막대”
전두환·노태우 판결문 인용...내년1월선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우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력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능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마찬가지로 ‘국정 2인자’인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21일 혹은 28일에 하겠다고 고지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의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재판의 향배를 가능케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사회단체·여행업계, 무안공항 조속 정상화 촉구

분향소 이전·복구 상황 정보공개 요구

무안 사회단체와 광주·전남 여행업계가 11개월째 굳게 닫힌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추진위원회와 무안군 사회단체, 광주·전남 여행업계 관계자 등 500여명은 26일 전남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전남도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결단을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무안공항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복구 공정률이나 설계변경 여부 등 기초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전남도의 ‘밀실행정’이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사고 책임 규명과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없는 진정한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안공항 정상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공항 내 설치된 분향소 즉각 이전 ▲복구 공사 진행 상황·정보 투명 공개 ▲제주항공 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도부의 정상화 로드맵과 확정 일정 제시 등 4개 사안을 요구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독감 환자 급증...예방접종·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남도는 26일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가 급증하고 소아·청소년층에서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12월 말까지 6주간 마스크 착용 캠페인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제 전남지역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은 46주(11월9~15일)차 기준 외래환자 1천명당 80.4명으로 전주(49.7명) 대비 61.7%나 급증했다. 이에 전남도와 무안군보건소 관계자 50여명은 이날 일로시장 일원에서 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독려와 마스크 등 예방 물품을

나눠주며 독감 확산 방지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예방접종 독려,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의료기관과 마트,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 A형(H3N2) 독감 바이러스”라며 “접종하는 백신은 중증 예방 효과가 있으므로 고위험군인 6세 이상 고령층과 영유아, 임신부는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점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사원모집

참신하고 유능한 사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직종: 양돈관리
▪자격: 내국인(연령제한없음)
▪인원: 1명
▪모집기간: 25년 11월 26일 ~ 29일까지
▪연락처: 061-535-0864
전남 해남군 북평면 백도로219-60
황토농장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감정가 이하]
○ 감정가6억2,000 == 급매4억1,000
임동5거리 대로변8층135평(바로입주가능)
[시세만값 급매물]

○ 백운광장 대로변코너
상업지289평(분할가능)평당1,600
○ 법원앞 대로변코너
전철역입구에정지 대지283평 평당1,200

급히 구합니다

토지,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가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